

개회사: 구독 농어촌 유토피아 실현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한국지역개발학회장 조덕호(대구대 교수)

chodh@daegu.ac.kr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인 5월에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영천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연구재단, 농진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도시공사, 경상북도 개발공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사)한국지역균형연구원, 대구컨벤션뷰로에 감사드리며, 본 학회를 후원해 주신 대구도시공사, 경상북도 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축사를 하시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님,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님,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조 발제를 해주시는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이사장님과 이성근 영남대 명예교수님, 전경구 대구대 명예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세미나 발표를 해 주시는 장원 농어촌 유토피아 소장님, 박인권 서울대 교수님과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회 발표 토론 및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춘계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한국지역개발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뛰어넘는 이념은 없는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타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시장경제를 대신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돌려주는 구독 경제 체제로 깨어 있는 시민에 의한 지혜 민주주의(Wisdom Democracy)로 나아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는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2500년 전에 노자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지지불태(知止不殆)를 주장하였습니다. 그침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는 이 그침을 모르고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미래의 기술과 환경,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진단하고 ‘소유의 종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유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자원의 고갈로 더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배타적인 소비구조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침을 모르고 폭주가 계속되면서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의 감소와 기후 변화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절대 선으로 추구해온 3과(과잉생산, 과잉소비, 과잉폐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지구의 종말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지속 불가능한 시장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서 우버(Uber)나 에어비엔비(Airbnb)처럼 공유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유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함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각자도생의 길을 추구하면서 공유경제는 추진 동력을 잃어버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와 공유경제를 넘어 점차 구독경제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는 반강제적으로 비대면 경제구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경제’는 일정 이용 기간만큼 물건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신문을 보기 위한 월 구독료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매월 일정 비용을 지급하면 무제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대표적이며, 넷플릭스 성공 이후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산하여, 최근에는 생필품부터 자동차 등 모든 재화를 월 구독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2023년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중 75%가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만큼 ‘구독경제’의 전망은 밝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일 년에 거의 한 번도 입지 않고 옷장에 쌓아 두는 수많은 옷과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관하지 않고 필요할 때 구독할 수 있다면 가정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 얼마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잉폐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구독경제 개념을 구체화하고, 구독농촌주택과 구독 공단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뉴노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일과 가정(퇴근 후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통하여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독경제의 개념이 구독 주택을 넘어 구독 농어촌 유토피아로 확대 적용하고, 농어촌과 도시의 공동번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도·농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독 농어촌 유토피아 지원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동하여 농지 및 주택을 이용할 경우, 이들에게 구독료를 받는 대신에 농어촌 유토피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포함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뉴노멀 시대에 도시 직장인들이 농촌에 접근할 수 있는 장애를 없애고,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일라벨(work-life balance)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도 주택이나 사용하지 않는 농지를 제공하는 지역주민에게는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하고, 이 지역에 거주할 경우,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이 동시에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극복하고, 구독 농어촌 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4기 충전(기본소득, 기본토지, 기본주택과 기본교육(직업)) 프로젝트를 통하여 여민동락(與民同樂)하여 그야말로 뉴노멀 시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함께 공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농어촌 유토피아가 도시민의 지속적인 농어촌 구독 혹은 농촌 정착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삶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주로 도시지역의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지 정비를 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동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자되도록 공단 재생을 유도하여야 하며, 이른바 구독산업공원 지원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도시의 유동자금은 주로 주택에 투자되는 것을 공단에다 투자되도록 조세감면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유동자금이 지역구독산업공원에 투자되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산업화의 idea는 가지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창업이 어려운 젊은 층에 산업공원을 구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금투자자에게는 국세, 지방세 등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세금 감면 및 각종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이 지역 산업공원에 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귀농, 귀촌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유토피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구독 농어촌 유토피아 지원법과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독 산업공원 지원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주택 및 투자수요를 지방공단과 농어촌에 투자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균형 패러다임을 제공하

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학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번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계기로 농어촌 유토피아와 도시재생, 공단 재생의 성공에 기반을 둔 명실공히 지역균형발전으로 세계 선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며, 오늘 학회에 참석한 모든 기관이 구독 농어촌 유토피아와 구독 공단 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1일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조덕호 올림